

철학사

11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2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 돌아가 보죠. 그의 형이상학을 논의할 때, 그가 형이상학을 모든 학문의 학문, 즉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그는 플라톤의 형상론의 불충분함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만의 형상론을 발전시켰고, 사물의 본질과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인과 요인을 구분했습니다.

원인에는 효율적 원인, 물질적 원인, 형식적 원인, 목적적 원인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까지 저절로 떠오르고 잠꼬대로 이야기할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형이상학은 존재에 관한 학문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존재를 다루는 특정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상학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학문, 즉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학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여러 범주,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일반적인 존재 개념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구분했습니다.

물질, 속성, 장소, 관계 등등. 그는 실제로 열 가지 범주를 열거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사고의 법칙이기도 하고, 존재의 범주 또한 사고의 범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기능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현실이 존재하는 방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현실이 합리적이고 우리도 합리적이려면, 우리의 합리성은 우리에게 현실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현실이 합리적이고 우리도 합리적이려면, 우리의 합리성은 우리에게 현실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존재의 법칙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법칙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모순율은 어떤 존재가 동시에 어떤 것이면서 어떤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것을 동시에 긍정하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순율을 보통 "A는 비A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A는 비A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중 부정은 동일성의 법칙, 즉 A는 A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은 자기 자신과 동일합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야. 서로 헛갈리지 말자. 고양이는 고양이지, 재앙이 아니야.

고등학교 때 라틴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누군가 “우리가 쓰는 ‘아무개’라는 말이 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건가요?”라고 물으면, 어린 고등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가끔 답답해하시면서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해야, 고양이는 고양이지 재앙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뭐, 그런 식이었어요. 동일성의 법칙이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때의 일이죠. 알겠죠?

A는 A와 같습니다. 따라서 모순율에는 배중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A 또는 비A.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흔히 이진 논리라고 불립니다. A와 비A가 참과 거짓, 즉 참과 거짓이라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제3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중률은 이진 논리를 제공하며, 일부 현대 논리학에서는 세 번째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에는 다소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논의 역설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타협하는 걸 말한 게 바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흰색, 검은색, 그리고 초록색. 네, 흰색, 검은색, 그리고 초록색이요.

흰색이 있다면... 앗, 흰색이라니... 글씨 쓰는 법을 배워야겠네. 흰색, 검은색, 초록색이 있다면... 그럼 무슨 뜻이죠...? 읽는 법을 배워야겠네.

그렇다면 당신은 3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흰색과 검은색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순되는 것은 흰색과 흰색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흰색이 있고, 이 두 개는 흰색이 아닙니다. 또는 초록색이 있고 초록색이 아닙니다. 또는 검은색이 있고 검은색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흰색과 흰색이 아닌 것은 모순이지만, 흰색과 검은색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논리학 개론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이 차이점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 논리학 개론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했던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아니요, 지금 수강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수업과 같은 시간에 진행되니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고의 법칙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법칙들은 존재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모든 존재가 이성적이고, 우리의 사고 또한 이성적이라면, 올바른 사고는 존재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체'라는 범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늘 어떤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고, 어떤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것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체에 관해서도 그는 두 가지, 때로는 세 가지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별적인 것들이 실체입니다. 개별적인 것들이나 그 일부, 또는 개별적인 것들의 내용물이 실체인 것이죠. 따라서 이 표시는 실체입니다.

이 책상은 물질이다. 이 손도 물질이다. 나도 물질이다.

철학에서 '실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물질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역사적으로 후대에 이르러서야 영혼을 실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영혼은 하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일차적인 의미에서의 존재입니다. 일차적인 실체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것 입니다 .

그것은 하나의 사물입니다. 이제, 실체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로 실체의 형태를 말합니다. 형태요.

그리고 그는 때때로 물질, 즉 형태가 없는 순수한 물질을 실체라고 부르는 제3의 의미, 즉 삼차적인 의미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처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실제로 일차적 실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차적인 실체로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음, 사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글썄요, 플라톤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플라톤은 존재가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것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플라톤은 개별적인 것들은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말해서, 개별 사물이 근본적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존재의 종류, 근본적인 실체가 개별 사물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플라톤에게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 노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플라톤에게 개별 사물은 결국 본질 의 덧없는 복제품에 불과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일차적인 실체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럼 형상도 실재 아닌가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독립적인 실체. 개별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지만, 형태는 그렇지 않다. 형태는 오직 물질과 결합된, 개별적인 실체, 특정한 물체로서만 존재한다.

다시피, 세부적인 것들은 질료형상적입니다. 즉, 형태 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형태는 실재하지만, 그것은 우연적인 의미에서 실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곧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있네요. 바로 그 규칙에 대한 하나의 큰 예외 말입니다.

그것은 형체가 결코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신 안에서 특정한 형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일차적 실체와 이차적 실체라는 개념은 개별적인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는 물질적 실재론자에 가깝고, 플라톤은 이상주의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재론자에 가깝죠.

네, 그리고 그런 용어가 사용됩니다. 플라톤의 신 개념을 부정하는 일부 플라톤 해석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상 철학적 자연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자연적인 것들,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는 두 전통이 점차 중세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 두 대안에서 파생되는 신학적 함의는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플라톤주의 전통은 아우구스티누스회와 프란치스코회 전통에 영향을 미쳤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전통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도미니코회 전통, 그리고 예수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사실입니다. 아니, 제가 양식 없이 말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것은 형태와 물질의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실체일 수 있습니다

형태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형태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물질과 결합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 형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음, 형체는 어떤 독립적인 영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분리된 형체의 세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음, 형체는 물질 자체의 잠재력에서 끌어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형태와 물질이 결합된 형태가 있죠.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형태는 사물 에 본질을 부여하는 동시에 잠재력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의 경우, 신체는 성장하고 물질은 팽창합니다. 그 유아의 형태는 성인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로스는 형태의 잠재력으로 정의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뭐랄까, 잘 사는 어른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상적인 건 육체가 없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플라톤에게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아닙니다. 이상적인 목표는 완전히 성장하고 사회생활에 온전히 기여하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별성이 일차적이고 형태가 이차적이라면, 물질은 어디에 속하는가? 물질은 삼차적인가? 그렇다, 물질은 삼차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이 있다. 순수한 물질을 삼차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는 가상의 순수한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순수한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약간 앞서 나가겠습니다 .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특정한 존재를 생각해 보면 , 인간은 이성적인 형태와 동물적인 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을 다른 종과 구별하는 특징은 바로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모든 동물 중에서 구별 짓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적인 형태에 동물적인 신체가 더해진 것이죠. 하지만 동물적인 신체는 당연히 동물적인 형태, 혹은 그가 즐겨 부르는 대로 동물적인 영혼과 식물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물. 식물체, 물질은 그가 말하는 식물적 형태 또는 식물적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게으른 사람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원소로 구성된 물질, 즉 기본 물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가상의 순수 물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점은 식물 생명은 영양 섭취와 번식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물 생명은 감각과 운동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인간은 이성적인 기능, 즉 합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기능 외에도 감각, 운동, 영양 섭취, 번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감각, 운동, 영양 섭취, 번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영양 섭취와 번식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원인은 형태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영양 섭취와 번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감각과 운동 능력을 포함하는 생명의 잠재력 말입니다.

살 수 있는 잠재력 이러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합리성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윤리학에서 선 에 대한 정의를 도출해냅니다 .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이란 충만한 삶 , 즉 이성의 지배 아래 있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번영을 말하는 거죠. 물론 무생물은 당연히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바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가진 특정한 3차원적 형태를 지닌 기본 물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또는 화강암 같은 형태를 가진 물질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순수 물질'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이자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원초적 물질', 즉 '마테리아 프리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적인 물질, 가상의 근원적 물질을 의미합니다.

칼? 형태라는 개념은 반드시 몸이나 실체와 관련 되어야 하잖아 . 맞아.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플라톤의 정의, 아름다움 같은 개념에 대해 어떻게 답했는지 궁금하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동굴에 갇힌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와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플라톤의 시각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란 이상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란 이상적으로 무엇일까요? 그의 윤리학에 이르기 전까지 이 질문에 집중해 봅시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인 측면 외에도 인간 심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으로. 그 윤리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이 모든 논의는 1차 물질과 2차 물질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질과 속성의 구분. 본질과 속성의 구분 .

자, 카우프만 책 331쪽과 332쪽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331 쪽과 332쪽. 7장 중 331쪽 말입니다.

그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첫째, 우연적인 의미에서. 둘째, 사물 본연의 성질에 따라.

다시 말해, 본질과 속성은 사물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속성적인 특성이 있고,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는 합리성입니다. 적어도 그 능력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제가 파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필수적인 속성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죠. 인간 본성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본질과 속성, 이 둘을 구분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8장 332쪽을 보면, 그는 실체의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의 구분에 주목합니다. 먼저 그는 실체의 의미를 하나, 둘, 셋, 넷으로 열거한 다음, 실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처음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2는 4가 아니잖아요. 4가 이제 4가 아닌 게 되어버렸네요. 모순율은 어디로 간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지 항목의 목록을 읽어보면 2번과 3번이 1번으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정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특정한 것들의 부분들' 또는 '특정한 것들의 내용들' 이라고 말한 것을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특정한 것들의 특정한 내용, 특정한 것들의 특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2와 3은 바로 그 부분들과 내용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 2, 3은 모두 주된 실체인 숫자 1로 합쳐집니다.

단순히 이차적 실체의 형태나 본질만 남겨두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4권 33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양한 범주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다른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35페이지에서는 잠재력, 가능성, 그리고 현실성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337페이지에서는 애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일부죠. 그리고 337조 하단 22항에 결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해, 어떤 속성 의 결핍을 의미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존재와 존재들 , 그리고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순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4권 전체는 존재, 존재의 범주, 존재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이제 12권, 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플라톤을 다룰 때, 플라톤 사상의 통일성을 이해 하기 위해 바퀴의 중심축에서 바퀴살을 따라 테두리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중심축, 즉 나뉘 선은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그에 상응하는 인식론을 상징합니다.

플라톤은 인식론, 즉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실재, 즉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그의 형이상학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그가 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가 윤리, 정치, 교육, 예술 등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형성하는 형이상학적인 핵심이자 토대입니다. 각주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이고 그와 연관된 인식론적 토대가 여러분이 연구하는 모든 학문의 철학적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과학철학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철학은 과학의 철학적 토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가정이나 함의, 그리고 인식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실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과학이 실재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실재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과학적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토대에서 비롯됩니다. 예술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가 관심을 갖는 현실은 어떤 종류일까요? 플라톤처럼 예술을 모방, 이상적으로는 형상의 모방으로 생각한다면,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형상에 대한 지식, 즉 인식론의 근간이 되는 지식이 됩니다

. 하지만 예술이 형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일종이며, 자기표현을 통해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종류의 현실과 다른 종류의 지식이 개입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예술을 설명하게 됩니다. 종교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다루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인식론은 신에 대해 아는 것, 또는 신을 아는 것과 관련된 종류의 앎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각주 끝)

이해하셨나요?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기초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예로 들어 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저서 『형이상학』 12권은 369 장에서 시작 해서 12권 전체, 아마 10개 장에 걸쳐 이어집니다.

자, 이제 12권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형이상학에 관한 이야기잖아.'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알 겠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다른 현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그 현실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이상학을 요약한 또 다른 진술이 필요합니다. 논증의 출발점으로 말이죠 .

그래서 1장 30페이지에서 새 단락은 370페이지의 첫 번째 열의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물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각적인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적 인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감각적인 의미 , 즉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좋아요.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계는 영원불멸의 세계와 소멸하는 세계로 나뉘는데, 후자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 또는 여러 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세 번째 요소인데,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가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둘로 나누고, 어떤 이들은 수학적 대상에서 형태를 동일시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만이 수학적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소멸하기 쉬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육체입니다 . 감각은 있지만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아, 영원한 물질적 몸이로구나. 영원하고, 특정한.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형태, 또는 모든 형태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태는 하나이든, 둘이든, 많은 간에 말입니다.

알겠죠? 음, 기본적인 두 가지, 특성과 형태는 간단히 복습하는 거예요 . 하지만 '영원한 특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세요 . 영원한 특성 이요 .

그건 신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그는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변화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두 번째 열 맨 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 네 가지 종류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에 관해서든, 질에 관해서든 , 양에 관해서든, 장소에 관해서든, 그리고 이성, 생성, 소멸에 관해서든 말입니다. 자, 이성, 즉 특정한 사물이라는 존재 자체에 변화가 생긴다 는 거죠. 그렇죠? 그건 간단히 말해서 '되어가는 것'의 문제입니다.

되거나 , 소멸되거나. 알겠죠? 이 특정한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변화의 한 종류예요.

두 번째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양의 변화입니다. 증가 또는 감소죠.

어떤 속성 이나 특성 의 변화는 변형 입니다 . 장소의 변화는 이동입니다.

알겠죠? 저 문단 끝부분을 보세요. 변화하는 모든 것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 영원한 것들, 즉 생성될 수는 없지만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아, 그는 다시 그 영원하고 물리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알 겠어요? 저 영원한 것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만, 공간 속에서 움직일 수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생성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움직임을 위한 물질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그 점을 자신의 생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본질적인 요소, 즉 구체적인 사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체, 개별적인 것들. 두 종류가 있다. 소멸하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

알겠죠? 그는 12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지만, 그의 저서 『천체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구 중심 우주론입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죠. 알겠죠? 지구 표면에서는 온갖 일들이 변해요. 지구 주위로는 행성들이 공전하죠.

물리적 특징. 움직임. 이동.

변화. 이 주장의 핵심은 네 번째 유형의 변화, 즉 이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행성들이 공전하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운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행성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직선 운동, 즉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이동하는 운동은 그 직선의 끝에서 멈추죠.

직선 이동은 A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것으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네 변을 따라 이동하며 모서리에서 잠시 멈춥니다. 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세 번째 종류의 이동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원형 이동입니다. 모퉁이에서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 표지판도 없고, 끝없는 이동만 있다. 그리고 그는 궤도를 도는 행성들에서 끝없는 이동을 발견했다.

사실, 지구 대기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이고, 그 변화가 지구 표면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모르셨어요? 아, 맞아요. 그게 바로 옛날 점성술 같은 것들이 존재했던 이유였죠. 하지만 그게 그의 우주관을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우주의 외곽에는 고정된 별들이 있는데, 그가 보기에는 50개 정도라고 하더군요. 물론 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숫자가 정확한지 아니면 더 많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요.

이 고정된 별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원형 운동을 하며 회전하는 것이죠. 이들은 영원한 물리적 천체로서, 고유의 성질과 운동 방식에 따라 영원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테르에 영향을 미쳐 행성들의 운동을 유지시켜 줍니다 .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항성들의 영원한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주는 바로 그 항성들의 움직임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원한 운동에는 불변하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불변하는 원인이 없다면 영원한 운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의 경계를 넘어, 움직이지 않는 원동력이자 영원불변한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합니다. 고정된 별들은 움직이는 영원한 원동력일지 모르지만,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변하지 않는 원동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원동력 말입니다 .

아!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가 어떻게 고정된 별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효율적 원인처럼 힘이나 동력을 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는 효율적 원인이 아닙니다. 힘을 가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존재한다. 존재는 순수하다.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은 전혀 없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

그리고 별들의 영혼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를 닮아가려 합니다. 다시 말해,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는 효율적인 원인이 아니라, 모든 일 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

별들은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리고 닮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움직였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곳에서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바로 그 경이로움이 우리를 철학적 탐구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 선함,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로움에 감동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결국 경이로움, 즉 선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온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근원을 닮아가려는 경이로움에 이끌립니다.

영원한 움직임. 글썄, 그가 고정된 별들에 대해 말할 때, 그 별들의 영혼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중세 사람들이 천사들이 별을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별들에 정신과 육체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뭐 그런 거죠.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걸 보면 신화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가 말하려는 요점은 신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궁극적인 원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는 효율적인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태와 물질이 모두 영원하다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물이 유지될 수 있는 수단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적인 자기력과 상승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